

교통 요지, 밀양 舞鳳寺의 석조여래좌상과 석조광배

The Stone Seated Buddha and Stone Mandorla at Mubongsa Temple (舞鳳寺) in Miryang, the Hub of Traffic

저자 (Authors)	임영애 Lim, Young-ae
출처 (Source)	신라문화 55 , 2020.2, 181-203 (23 pages) THE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SILLA CULTURE 55 , 2020.2, 181-203 (23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11597
APA Style	임영애 (2020). 교통 요지, 밀양 舞鳳寺의 석조여래좌상과 석조광배. 신라문화, 55, 181-203.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0 15:5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교통 요지, 밀양 舞鳳寺의 석조여래좌상과 석조광배

임영애*

<目次>

- | | |
|----------------------------|-------------------------------------|
| I. 머리말 | III. 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과 석조광배의 제작 시기와 특징 |
| II. 영남사(嶺南寺)와 무봉암, 그리고 무봉사 | IV. 맺음말 : 밀양 무봉사의 석조여래좌상과 석조광배의 의미 |

밀양 무봉사의 석조여래좌상과 석조광배는 원래 제 짝이 아니지만, 현재 무봉사 대웅전에 함께 봉안되어 있다. 두 작품 모두 관련 문헌 자료가 전혀 없고, 명문도 없어 연구의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 가운데 석조여래좌상은 좌대와 광배를 모두 잃었지만, 온전했다면 전체 높이가 230cm에 달했을 것이다. 이 정도 크기라면 영남사의 주요 전각에 봉안했던 불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영남사는 고려 말에 폐사되었고, 그 자리에는 영남루가 세워졌다. 20세기 초에는 영남사 절터에 남아있던 석조여래좌상과 석조광배를 인근의 무봉암으로 옮겼고, 무봉암은 언젠가 사찰의 격을 높여 무봉사로 불리게 된다. 사찰의 전언으로는 영남사가 폐사된 직후 말사였던 무봉암의 사격을 높여 무봉사라 부르게 되었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20세기부터 무봉사라 불렀다. 19세기 말의 지방지도에서도 여전히 ‘무봉암’이라고 일컫고 있기 때문이다. 석조여래좌상과 석조광배는 양식을 고려하여 모두 9세기 무렵 조각한 것으로 추정했다.

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은 광배와 좌대를 잃어 불신만 남아있고, 석조광배 역시 본존불을 잃고 광배만 남아있지만, 두 작품은 모두 통일기 신라 하대의 우수한 작품이다. 특히 석조여래좌상은 인근 창녕 관룡사 용선대의 석조불좌상과 같은 계열의 불상으로 창녕과 같은 권역이었음을 알려준다. 밀양은 낙동강 물길을 통한 교통망의 발달로 사람과 재화가 모이는 장소였다. 지금은 대부분 사라지고 절터만 남아 옛 영화

*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대학원 미술사학과 부교수

** 본 연구는 2020학년도 동국대학교 논문게재장려금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를 알려주지만, 밀양에는 풍부한 재원의 확보로 불교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췄고, 이를 잘 알려주는 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봉사의 석조여래좌상과 석조광배인 것이다.

주제어 ● 밀양(密陽), 영남사(嶺南寺), 영남루(嶺南樓), 무봉암(舞鳳庵), 무봉사(舞鳳寺), 석조여래좌상, 석조광배, 약사여래좌상, 창녕(昌寧), 관룡사(觀龍寺), 용선대(龍船臺)

I. 머리말

무봉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석조여래좌상은 1969년 6월 24일, 보물 제493호로 지정되었다.¹⁾ 현재 불상 뒤에 놓인 석조광배는 원래 불상과 제 짝은 아니지만, 함께 봉안되어 있다(<그림 1>).²⁾ 밀양 무봉사는 신라 제36대 혜공왕(재위 765~780) 9년, 즉 773년에 법조(法照, ?~?)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은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통도사의 말사이다.³⁾ 무봉사는 원래 무봉암이라는 이름으로 창건되었는데, 무봉암은 신라 명찰 가운데 하나인 영남사(嶺南寺)의 소속 암자였다.⁴⁾ 고려 말에 본사인 영남사가 멸실되자 영남사 터에 영남루를 세우고, 무봉암은 사격을 높여 무봉사로 명칭을 바꾸었다고 전한다.⁵⁾

아쉽게도 무봉사 석조여래좌상과 석조광배 관련 문헌 기록은 남아있는 것이 없다.

1) 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과 광배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불교조각사 관련 개설서에서 간간히 언급되기는 했지만, 이 상에 대한 단독 연구는 1962년에 정영호 선생이 간략히 소개한 글 단 한 편뿐이다. 鄭永鎬, 「密陽 舞鳳寺의 石造光背와 石佛坐像」, 『미술사학연구』 19·20, 1962, pp.68~72.

2) 무봉사 대웅전의 석조여래좌상과 석조광배는 앞서도 밝혔듯이 원래 제 짝이 아니다. 그런데도 현재 대웅전에 같이 봉안되어 있고, 지정 당시에도 일괄 지정되었기에 이 글에서는 함께 살펴본다.

3) 밀양지편찬위원회 편, 『密陽誌』, 밀양문화원, 1987, p.450.

4) 무봉암이 영남사 말사였음을 입증하는 문헌 자료는 없다. 다만 현재 영남루가 위치한 장소가 원래 영남사 자리였고, 지금의 영남루와 무봉사는 인접해 있으며, 영남사가 폐사된 후 무봉사의 석조여래좌상과 석조광배를 이곳 무봉암으로 옮겼다는 점에서 무봉암이 영남사의 말사였을 가능성은 높다. 아울러 불상과 광배가 원래 영남사의 것이었는지에 관해서도, 실제로 무봉사 석조여래좌상과 석조광배의 크기로 보면, 작은 암자였던 무봉암보다는 영남사에 봉안되어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

5) 밀양지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1987, pp.447~451.

광배와 좌대도 잃어 불상만 남았지만, 손상된 곳이 거의 없고 특히 상호가 완전하게 남아있어 통일기 신라 불교조각사 연구의 귀중한 예 가운데 하나이다. 석조광배 역시 불상은 잃어버리고 광배만 남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무봉사의 석조여래좌상과 석조광배는 지금은 사라지고 절터만 남아있는 영남사지에서 함께 옮겨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석조여래좌상과 석조광배가 원래 봉안되어 있었다고 알려진 영남사지에는 현재 보물 제147호로 지정돼 있는 영남루가 세워져 있다.⁶⁾ 영남루는 밀양 지역 명소로 조선시대 묵객이 남긴 300여 편의 시가 있을 만큼 즐겨 찾던 장소였다. 이 글에서는 통일기 신라 영남사와 무봉암, 그리고 무봉사와의 관계, 이후 영남사가 폐사된 후 영남루와의 관계 등을 살펴보고, 아울러 무봉사의 석조여래좌상과 석조광배의 특징과 제작 시기, 그리고 한국 불교조각사에서 지닌 의미를 알아보려 한다.

<그림 1> 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및 석조광배, 무봉사 대웅전



II. 영남사(嶺南寺)와 무봉암, 그리고 무봉사

무봉사의 전신은 원래 영남사 소속 암자인 무봉암이었다. 영남사는 교통의 요지에 있어 사세가 번성했던 대사찰이었으며, 특히 밀양 응천강(凝川江) 가의 절경에 위치해 아름다운 경관으로 더욱 유명했다(<그림 2>).⁷⁾ 영남사의 창건이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6) 『新增東國輿地勝覽』 第26卷 密陽都護府 ; 『國譯 신증동국여지승람』 III,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89, p.170 ; 『密陽志』(1652年), 『東江遺集』 卷十六 別錄, 申翊奎(1605~1660)의 글을 1690年 편찬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105, 2003) 이하 『밀양지』의 번역은 최예심, 장유승, 김재영 공역,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5(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를 참조하였다. 1652년에 지은 『밀양지』와 밀양문화원에서 1987년에 펴낸 『밀양지』는 한글독음은 같지만, 한자는 『密陽志』와 『密陽誌』로 달리 쓴다.

7) 『密陽志』(1652年), 앞의 책, 別錄, “唯樓最勝絕 其扁以嶺南 蓋不唯擅勝一府 擅嶺南之勝故云(영남루의 경치가 가장 빼어난데 ‘영남’이라는 편액을 건 것은 밀양부에서만 으뜸가는 명승일 뿐 아니

<그림 2> 밀양 무봉사 전경



알 수 없다. 다만 무봉암의 창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즉 773년 승려 법조가 “영남사를 순례하다가 봉황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 상서로운 성지라 여기고 봉황이 앉은 자리에 절을 창건했다”는 것이다.⁸⁾ 기록을 그대로 따른다면 무봉암은 773년 창건한 것이 되고, 영남사는 무봉암보다 앞서 창건되었을 테니, 적어도 773년 이전 어느 때가 된다.⁹⁾

‘무봉(舞鳳)’이라는 명칭의 유래와 관련해 위와 같이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다른 이야기도 전한다. 즉, 무봉암 창건 때부터 ‘무봉’이라는 사찰명을 지녔던 것이 아니라, 창건 후 고려 고승 범률국사(梵律國師, ?~?)가 이 절에서 하안거를 하면서 살펴보니 밀양의 지세가 봉황이 춤추는 형국이어서 절 이름을 ‘무봉’로 하였다는 것이다.¹⁰⁾ 이런 이유로 지금의 삼문동 지역에서 봉황이 알을 낳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밤나무를 심어 가려 주었으며, 무봉암에서 아침저녁으로 종소리를 울려 봉황을 날게 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¹¹⁾

어떤 연유로 ‘무봉’이라는 사찰명을 지니게 되었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무봉암은 영남사의 부속 암자였다는 것이다. 영남사와 무봉암 관련해서는 몇몇 흥미로운 문헌 기록과 그림이 전한다. 영남사 관련 가장 이른 기록으로 서하(西河) 임춘(林椿, 생졸년 미상)이 남긴 시가 있다.¹²⁾ 1175년 봄, 고려 의종(毅宗, 재위 1146~1170) 때에 서하 임춘은 1170년

라 영남의 뛰어난 경치를 독점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8) 밀양지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1987, p.450.

9) 법조가 직접 창건한 것이 아니라 혜공왕(재위 765~780)이 법조에게 받은 佛恩을 갚기 위해 사찰을 지어주고 무봉암이라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를 따라 영남사의 초창은 경덕왕 2년(743)이며, 혜공왕 9년(773)에 무봉암을 창건하여 영남사에 부속 암자로 삼았다고도 하지만(밀양지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1987, p.450) 근거는 명확치 않다.

10) 『舞鳳庵重建記』, 『太乙菴文集』 卷之五 記 “庵以舞鳳名 梵律國師之所結夏而命之也 以邑基爲舞鳳形 故多造鳳卵於沙門 野而種栗成林以掩翳之 置庵於山傍 昕夕鳴鍾以翔舞之 且夫姑蘇城外寒山寺 入於楓橋船上之咏 岳陽樓前道林寺 添得煙鍾畫中之景 嶺南樓側畔不可無此舞鳳菴矣…”.

11) 위의 각주 참조.

12) 林椿, 『西河集』, 진성규 번역,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5, pp.231~235 ; 243~245.

정중부의 난으로 집안이 기울고 과거를 치를 수 없게 되자, 1174년 5월까지 개경 주변 시골에 칩거했다. 이후 예천, 상주 등 강남지역으로 옮겨 살게 되었는데, 이 때 밀양 영남사에 몸을 의탁했다.¹³⁾ 그는 영남사에 머물면서 몇 편의 시를 남겼는데, 『제영남사(題嶺南寺)』, 『영남사죽루(嶺南寺竹樓)』, 『이월십오야월병서(二月十五夜月并序)』가 대표적이다. 세 편의 시는 사찰 경내에 있는 누대(樓臺)에 올라 아름다운 영남사 주변의 풍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영남사는 오리와 갈매기 떼가 목욕하는 질푸른 응천강 암벽 위에 위치하여 사방에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산하와 세속이 더불어 있다’라고.¹⁴⁾ 이 시를 통해 1175년 영남사에 단청이 화려한 죽루가 있었으며, 고려 문인이 찾아 머물 만큼 아름다운 풍광의 명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¹⁵⁾ 임춘의 『서하집』이 중요한 이유는 적어도 1175년까지 영남사와 경내의 누각이 있었음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임춘과 같은 고려 문인이 내려와 몸을 의탁할 만큼 당시 이름있는 사찰이었음을 입증해 주기 때문이다.

『동문선』에 실린 고려 후기 문신 이연종(李衍宗, ?~?)의 『사박치암혜다(謝朴耻庵惠茶; 차를 주신 박치암에게 사례하며)』라는 제목의 40행 칠언절구에도 영남사 관련 이야기가 언급돼 있다. 이연종이 당시 재상이었던 치암 박충좌(朴忠佐, 1287~1349)에게 차를 선물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읊은 시이다. 시의 내용 가운데 이연종이 예전에 영남사에 머물면서 스님들과 차 달이기 시합했던 때를 회상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소년 시절에 영남사에 손님되어	少年爲客嶺南寺
차 싸움[차 잘 끓이기를 겨룸] 한가한 유희 여러 번 했다	茗戰屢從方外戲
용암 바위 봉산 기슭에서	龍巖巖畔鳳山麓
죽림 속에 증들 따라 매부리[鷹嘴, 차를 말함]를 따다가	竹裏隨僧摘鷹嘴
불 앞에서 말린 것 가장 좋다 하는데	火前試焙云最佳
더군다나 용천봉정 물까지 있음에라	況有龍泉鳳井水
증들의 차 솜씨 바르기도 하여라	沙彌自快三昧手
찾잔 속에 설유를 쉬지 않고 집어넣었다	雪乳翻甌點不已 ¹⁶⁾

13) “以文章鳴世 屢舉不第 鄭仲夫之亂 閭門遭禍 椿脫身僅免 卒窮天而死”(『高麗史』 卷102, 列傳 15) 『高麗史』에는 서하 임춘이 고려 문인으로 문장이 뛰어나 세상이 이름을 알렸으나 그의 삶은 불우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의 시는 『서하집』, 『동문선』에 실려 있는데, 영남사에 대한 시는 『서하집』에 실린 144편의 시 가운데 3편이 있다. 임춘 시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있다. 유지봉, 『林椿 漢詩에 나타난 都城 心象과 意識 일고찰』, 『동아시아고대학』 46, 2017, pp.9~41.

14) 林椿, 앞의 책, 진성규 번역, 2015, pp.231~235.

15) 12세기 말 임춘의 시를 시작으로 근대까지 266명이 영남루를 방문하여 남긴 350여 편의 시가 있다. 안계복, 『시문분석을 통한 영남루의 경관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2, 2014, p.2.

16) 『東文選』 卷之七 「謝朴耻庵惠茶」 ‘少年爲客嶺南寺 茗戰屢從方外戲 龍巖巖畔鳳山麓 竹裏隨僧

<그림 3> <해동지도(海東地圖)>
 밀양도호부 세부, 1750년 초, 보물
 제1591호,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이처럼 13세기까지 온전했던 영남사는 고려 제31대 공민왕(재위 1351~1374) 8년, 즉 1359년에 화재로 소실되었다.¹⁷⁾ 영남사가 소실되자 다행히 화를 면한 무봉암이 그 역할을 대신했던 것으로 보인다. 영남사를 대신해 사세를 이어 가다가 이후 무봉사로 승격하여 오늘에 이른다. 무봉암에서 무봉사로 명칭을 바꾼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19세기 후반까지는 무봉암이었다. 18세기 중엽에 제작한 <해동지도(海東地圖)>를 비롯해 1872년 지방지도에도 여전히 ‘무봉암’이라는 명칭으로 적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표적인 관찬(官撰) 군현지도인 <해동지도>는 관에서 제작하여 사용한 지도이기 때문에 정확도에 있어서도 가장 신뢰할 만한 지도이다(<그림 3>). 1736~1776년 무렵 제작한 것으로 추정하는 <여지도(輿地圖)>, 19세기에 제작한 <지승(地乘)>(<그림 4>), 그리고 1872년 지방지도(<그림 5>)에도 여전히 무봉암의 이름으로 등장해 적어도 19세기 후반까지는 계속 무봉암이라고 불렸음은 확실하다. 이에 따라 사중에 전하는 것처럼 영남사가 폐사된 직후 무봉암의 격을 높여 무봉사로 바꾸었다는 이야기는 수정되어야 한다.

그림으로는 18세기 후반 작품인 간송미술관 소장 『교남명승첩(嶠南名勝帖)』 가운데 <밀양영남루>가 있다.¹⁸⁾ 또 19세기 후반에 영남지역의 8경을 그린 <경상도명승도>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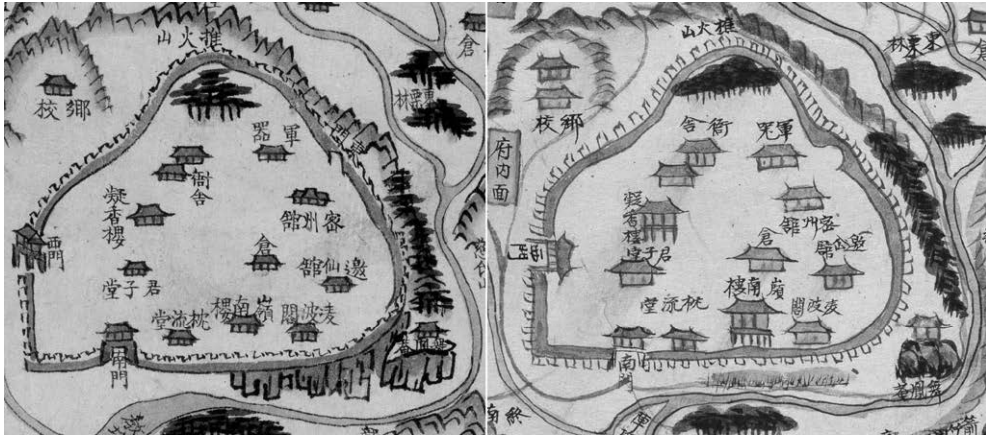
摘鷹觜 火前試焙云最佳 況有龍泉鳳井水 沙彌自快三昧手 雪乳翻甌點不已…’.

(http://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365A_0070_010_0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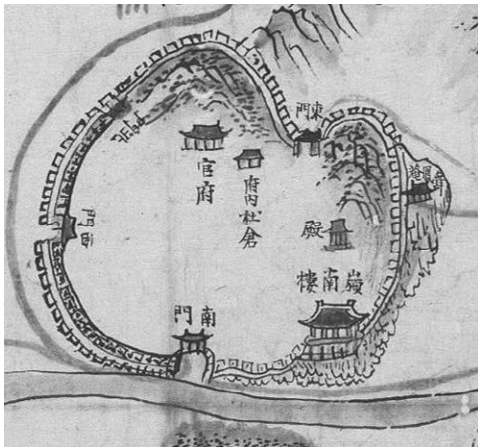
17) 『新增東國輿地勝覽』 第26卷 慶尙道 密陽都護府 “嶺南樓, 客館 동쪽에 있다. **바로 옛 嶺南寺의 작은 누각인데, 절은 없어졌다.** 至元 을사년(1365)에 金湊가 군수가 되어 예전대로 고쳐 세우고, 인하여 절의 이름으로써 이름지었다. 뒤에 부사 安質이 중수하였다. 天順 경진년(1460)에 부사 姜叔卿이 또 중수하여 옛 규모를 넓히니, 크고 아름답기가 비길 데가 없다(밀줄 강조 필자).”(민족문화추진위원회, 고전국역총서 42, 『國譯 東國輿地勝覽』 III, 1970, p.565); 유사한 내용은 『輿地圖書』 慶尙道 5 (변주승 역주, 『輿地圖書』 35, 디자인 흐름, 2009), p.203; 李裕元(1814~1888), 『嶺南樓』(『林下筆記』 第13卷 文獻指掌編); 趙寅永(1782~1850)의 글을 1868년에 편찬한 『嶺南樓重修記』(『雲石遺稿』 卷之十 記)에도 있다.

18) 잘 알려진 것처럼 이 그림은 ‘謙齋畫 嶠南名勝帖’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어 검재 정선의 작품으로 알려져 왔지만, 양식상 검재의 작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림 4> (왼쪽) <여지도(輿地圖)> 밀양도호부 세부, 1736~1776년,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오른쪽) 지승(地乘) 밀양도호부 세부, 18세기 후반~19세기 초,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그림 5> 지방지도 세부, 밀양도호부 세부, 1872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그림 6> <경상도명승도> 8쪽 병풍 가운데 제7쪽 <밀양영남루도> 부분, 표시 부분이 무봉암. 19세기 후반,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제7쪽인 <영남루도>도 있다.¹⁹⁾ 『교남명승첩』의 58점 그림 가운데 17번째 그림이 바로

유미나, 『간송미술관 소장 <골굴 석굴도>의 작가와 회화적 재현 방식 고찰』, 『강좌미술사』 50, 2018, pp.43~61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 글에서 필자는 ‘골굴석굴도의 작가는 겸재 정선도 아니고, 그 손자 정황도 아닌 18세기 후반에 활동한 겸재 정선을 추종한 이름없는 화가로 보았다.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묘법을 속필로 구사했으며, 작품의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밀양영남루>이다. 아쉽게도 이 그림은 실견할 수 없어 19세기 후반의 <경상도명승도> 가운데 <영남루도>로 살펴보면, 영남루를 중심으로 성곽이 둘러 있고, 그림을 향해 오른쪽에 보이는 성곽 바로 밑에서 무봉암의 전각 2동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6>).

잘 알려진 것처럼 불에 타 중요 법당은 사라지고 종각인 금벽루(金壁樓)라는 이름의 작은 누각만 남은 영남사 옛터에 1365년 김주(金湊, ?~1404)가 영남루를 세웠고, 이후 영남사를 대신하여 이 지역 명소가 되었다(<그림 3>~<그림 5>).²⁰⁾ 영남루는 조선시대 밀양도호부의 객사 부속 건물이었다. 사사로운 누각이 아니라 관원의 객관인 공루(公樓)로서 손님을 접대하고, 주변 경치를 돌아보면서 휴식을 취하던 공간으로 사용됐다. 물론 영남루가 처음 지어진 때는 1365년이지만, 영남루 역시 이후 여러 차례 소실과 재건을 거듭하였고, 지금의 영남루는 1844년 조선 헌종(憲宗, 재위 1827~1849) 10년에 지은 것이다.²¹⁾ 현재 영남루와 무봉사는 100여 미터 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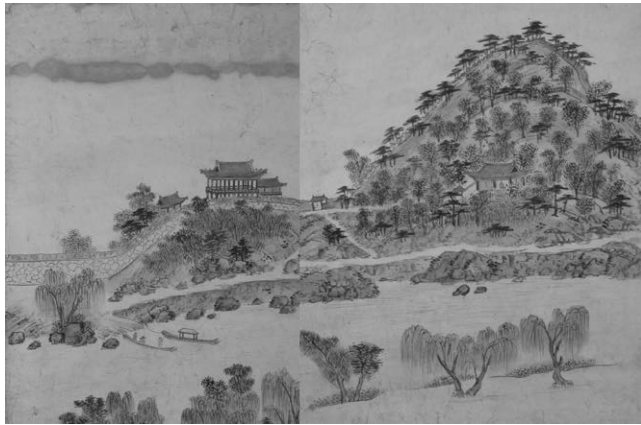
한편, 영남사의 소속 암자였던 무봉암이 무봉사의 전신임에는 틀림없지만, 옛 무봉암과 현재 무봉사의 자리가 일치하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쉽게도 지금의 무봉사는 옛 무봉암과 같은 자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밀양십이경도로 알려진 <금시당십이경도(今是堂十二景圖)> 가운데 3번째 무봉암 전경을 그린 <봉암고종도(鳳庵孤鐘圖)>에 그려진 무봉암과 현재 무봉사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다(<그림 7>과 <그림 8> 비교). 이를 확인하기 위해 <봉암고종도> 아래 함께 표구되어 있는 금시당십이경 시를 주목해 보려 한다.²²⁾ 금시당십이경시는 금시당의 제11대손 이용구(李龍九, 1812~1867)가 지은 것이다. 시 내용은 아래와 같다.²³⁾

- 19)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으며, 각 폭의 그림 크기는 38×136cm이다. 필자 미상의 <경상도명승도>를 1892~1895년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 논고는 다음과 같다. 김종태, 『규장각 소장 『경상도명승도』 고찰』, 『규장각』 45, 2014, pp.159~193.
- 20) 『密陽志』, 앞의 책, 別錄 “或曰樓即麗時嶺南寺之小樓 寺廢而樓仍舊號 世莫知其然否(어떤 이는 “영남루는 고려 때 영남사의 작은 누각이었는데 절이 없어지고 나서도 누각은 옛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 21) 영남루 관련 연구 성과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호열, 『밀양 영남루 연혁 및 건축형식 변천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9, 2000, pp.7~25; 류성룡, 『객사 樓閣의 기능 및 공간성 변화 : 밀양 영남루를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34, 2018, pp.69~76.
- 22) 엄태건, 김수진, 박정임, 강한민, 심우경, 『밀양 今是堂 12경의 문화경관 해석』,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2, 2011, pp.1~18.
- 23) 금시당은 李光珍(1513~1566)이 1565년 담양도호부사를 끝으로 관직을 그만두고 밀양에 낙향한 후 만년을 보내기 위해 세운 정자로 1566년 정월에 공사를 마쳤다. <금시당십이경도>와 李龍九(1812~1867)가 지은 <금시당십이경>시를 비교 연구한 글로는 최경환, 『화면상의 풍경과 시적 풍경의 차이와 근거 : <금시당십이경도>와 <금시당십이경> 시의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0, 2009, pp.39~72; 최경환, 『실경산수도시와 화면상의 이미지의 재산출 방향 -이용구의 <금시당십이경> 시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8, 2008, pp.159~192가 있다.

등불도 꺼져가고, 달도 없이 밤은 점점 깊는데	殘燈落月到深宵
온갖 소리 다 그치고 사방이 적막한데	萬籟俱空四寂寥
산승은 속세의 번뇌에서 벗어난 듯	山僧似解塵襟惱
쳐서 보내는 종소리에 갓은 시름 사라진다.	打送鐘聲衆慮消 ²⁴⁾

<봉암고종도>에는 화면 윗부분에 크게 자리 잡은 무봉산이 있다. 산의 남쪽 기슭에 종각이 있고, 종각 안에 종을 치는 승려가 보인다. 화면 왼쪽 기슭에 있는 영남루 후문은 작게 그려져 있다. <금시당십이경도>는 밀양의 동남부 지역 경관을 그린 산수화이다.²⁵⁾ 그림을 그린 시기는 1566년으로 알려졌지만, 화풍으로 보면 16세기 중엽의 그림으로 보기는 어렵

<그림 7> (왼쪽) <금시당십이경도> 12폭 가운데 제7폭 <남루화동(南樓畫棟)> (오른쪽) 제3폭 <봉암고종도(鳳庵孤鐘圖)> (© 밀양시립박물관 제공 사진, 두 개의 독립된 그림을 연결되도록 필자 편집)



다.²⁶⁾ 현재 밀양시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08호로 지정된 12폭짜리 그림이다.²⁷⁾ 이 그림은 근재(謹齋) 이경홍(李慶弘, 1540~1595?)이 부친 금시당

24) 이광진의 11대손인 이용구가 지은 금시당십이경 시는 『今是堂先生文集』(금시당집국역본간행위원회 李雲成 編譯, 三寶企劃, 2000, pp.296~297)에 수록되어 있다. 시의 번역은 국역본을 토대로 약간의 수정을 가했다.

25) <금시당십이경도> 사진을 비롯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준 밀양시립박물관의 김재학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26) <금시당십이경도>의 정확한 제작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필자는 금시당십이경 詩가 쓰인 19세기 전반 무렵으로 추정한다. 다만 현재 무봉사의 위치가 1738년 물난리로 원래 무봉암의 위치와 달라진 때가 18세기 후반인데(이 글의 각주 29) 참조), 그림 속 무봉암은 율기기 전의 위치에 그려져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는 1566년에 그린 <금시당십이경도>를 19세기 전반 11대손인 이용구가 시를 지을 때 옛 그림을 모본으로 하여 새로 그렸기 때문에, 화풍은 19세기이지만, 그림의 배경은 율기기 이전의 무봉암이라고 추정한다.

27) <금시당십이경도>는 금시당 주변의 아름다운 12곳의 경관을 그린 것인데, 피꼬리봉, 용두산, 무봉암, 마암사, 월연대, 사인당 마을, 영남루, 밀양읍성, 배나무沼, 밤나무 숲, 밀양강변, 삼문동들 등 여주 이씨 일가가 소유하고 있던 땅과 관아를 경관 대상으로 하여 그린 그림이다. 엄태건, 김수

<그림 8> 사진 왼쪽의 영남루와 오른쪽의 무봉사 전경



이광진(李光軫, 1513~1566)이 병이 깊어져 주변의 경관을 둘러볼 수 없게 된 것을 아쉬워하며 부친을 위해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다.²⁸⁾ 봉암, 즉 무봉암은 아동산(衡東山) 중턱에 있다. 아동산은 밀양 내일동의 안산으로 밀양시의 중심 지역에 있으며, 관아의 동쪽에 있는 산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무봉사가 자리 잡

고 있어 무봉산이라고도 불린다.

현재 무봉사는 <금시당십이경도>의 봉암고종에 그려진 무봉암과 위치가 다르다 (<그림 7>과 <그림 8>). 현재의 무봉사가 그림 속 무봉암보다 더 위쪽에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무봉암은 꾸준히 원 자리를 잘 지키며 사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임진왜란 때 소실됐고, 1605년 혜징(慧澄)이 중건, 인조 6년(1628년) 경의(敬儀)가 중창했다. 그러다 1738년 물난리가 나면서 지금의 무봉암은 자리로 옮길 수밖에 없게 된다. 지금의 자리에 자리 잡게 된 사실을 기록한 문헌으로 태을암(太乙庵) 신국빈(申國賓, 1810~1884)이 지은 『무봉암중건기(舞鳳庵重建記)』가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38년 정조 7년 물난리로 큰비로 언덕이 무너지고, 사찰이 무너져 오랫동안 방치된 것을 부사 김이탁(金履鐸)이 승려들에게 명하여 모연(募緣)하는 한편, 자신도 봉록을 희사하여 보충함으로써 옛터에서 수십 보 옮겨 이에 중건하였다. 부사는 안동 사람으로 여주에 살았다(밑줄 강조 필자).²⁹⁾

진, 박정임, 강한민, 심우경, 앞의 글, 2011, pp.1~18 ; 이 그림은 금시당 이광진의 종손들이 소장해 오다가, 15대 종손 이증기씨가 1997년 밀양시립박물관에 기증하여 현재 밀양시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최경환, 『실경산수도시와 화면상의 이미지의 재산출 방향 -이용구의 <금시당십이경> 시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8, 2008, p.162의 각주 4)).

28) 금시당 이광진은 조선 중기 밀양의 부호세력이었다. 여주 이씨였던 금시당의 유적을 중심으로 그림, 시문, 기문 등이 남아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금시당십이경도이다. 금시당 이광진은 문정왕후의 사망 이후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웅천 강변의 백곡에 터를 잡고 금시당을 건립하여 별서를 경영하였다. 엄태건 외, 앞의 논문, 2011, pp.1~18.

29) 『舞鳳庵重建記』, 『太乙菴文集』 卷之五 記 “...歲癸卯菴圯于水便成滄桑 府使金侯履鐸命僧而募緣 捐俸而補施 移舊址數十步而重建于茲 侯安東人居驪州”

1738년 물난리로 사찰이 폐허 되었지만, 바로 복구되지는 못했다. 1781년 밀양 부사였던 김이탁이 모연을 주도했으므로 대략 40여 년간 방치되어 있다가 다시 복구된 것이다.³⁰⁾ 18세기 후반 물난리로 언덕이 무너졌기 때문에 물을 피해 좀 더 높은 곳으로 옮겼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무봉암은 원위치에서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림 속 무봉암과 현재 무봉사의 위치가 달라진 것이다(<그림 7>과 <그림 8>). 이는 앞서 살펴본 19세기 후반의 <경상도명승도>에서도 위쪽으로 이동하여 성곽 바로 옆에 자리한 무봉암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6>).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위치는 조금 다르지만, 현재의 무봉사는 영남사의 소속 암자였던 무봉암을 계승한 사찰이라는 점은 틀림없다. 자리를 옮겨 새로 세워진 무봉암은 100여 년 후인 1899년(광무 3) 경봉(慶逢)이 중건하고, 1942년에 중수, 증축하여 오늘에 이른다.

Ⅲ. 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과 석조광배의 제작 시기와 특징

무봉사 대웅전에는 화강암으로 조성한 높이 97cm의 석조여래좌상과 높이 151cm의 석조광배가 봉안돼 있다.³¹⁾ 사찰에 전하는 바로는 이 두 유물은 1920년 무렵 영남사 절터에서 옮겨온 것이라 한다.³²⁾ 불상은 상호가 손상된 곳이 없고, 불신의 상태도 좋아 매우 중요한 상이지만, 한국불교조각사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우선 석조여래좌상의 경우 광배와 좌대가 없이 불상만 남아있으며, 불상에 명문이 있다거나 관련 문헌 자료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무봉사 석조여래좌상을 제작한 시기와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보면, 이 석조여래좌상이 원래 영남사 혹은 부속 암자인 무봉암의 불상이 틀림없겠지만, 이 역시 20세기 초의 전언 이외에는 남아있는 자료가 없어 아쉬움이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영남사와 무봉암 관련하여 고려 말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는 문헌 자료가 적지 않아 대략의 사찰 연혁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한편 현재 불상 뒤에는 석조광배가 놓여 있는데, 학계에 처음 알려진 1962년까지만

30) 김이탁이 언제 밀양 부사로 부임했는지는 명확치 않지만,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1781년 밀양 부사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承政院日記』 81冊 正祖 5年 1月 29日 壬寅 40/41 기사 1781년.

31) 석조불좌상의 크기는 불상 높이 97cm, 머리 높이 36cm, 어깨너비 54cm, 가슴너비 30cm, 무릎 너비 75cm이다.

32) 정영호, 앞의 논문, 1962, p.68.

해도 석조여래좌상과 광배는 각각 다른 전각에 봉안되어 있었다(<그림 9>, <그림 10>의 사진 왼쪽). 지금은 대웅전 안에 함께 봉안되어 있지만, 광배 크기로 보면 석조여래좌상의 광배라고 보기는 어렵다. 통상 광배 중앙의 두광 부분이 불상 뒷머리의 중심과 정확히 일치하지만, 이 경우는 광배의 크기가 작아 광배 중앙의 두광이 불상 머리보다 약간 아래쪽에 위치하기 때문이다(<그림 11>). 아울러 불상을 받치고 있는 석조 좌대 역시 원래 제 짝이 아니며, 후대에 새로 조성한 것이다.

<그림 9>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1962년 촬영(© 정영호, 『密陽 舞鳳寺의 石造光背와 石佛坐像』 p.96의 1)



<그림 10> (왼쪽) 무봉사 석조광배, 1962년 촬영 (© 정영호, 앞의 논문, p.96의 2). (오른쪽) 석조광배 뒷면의 약사여래좌상



<그림 11> 무봉사 대웅전 석조여래좌상과 석조광배



이처럼 석조여래좌상은 비록 광배와 좌대를 모두 잃었지만, 상호가 온전하게 남아있는 데다가 통일기 신라 후기의 양식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 통일기 신라 불상 가운데 상호가 온전히 남아있는 예가 드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귀중한 예이다. 불상은 굽은 나발(螺髮)의 머리 위에 육계(肉髻)는 높이가 낮으며, 전체적으로 평퍼짐하게 표현했다. 이처럼 굽은 나발과 평퍼짐한 육계는 이 불상의 제작 시기를 가늠하는데 매

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8세기 통일기 신라 불상의 경우 나발 크기가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데, 무봉사 불상은 나발이 굽어 왼쪽 귀에서 이마를 지나 오른쪽 귀까지 14개의 나발이 있다. 8세기 중엽 석굴암 본존상은 28개이니 나발 굽기에서 차이를 보인다(그림 12>). 이처럼 나발이 굽은 예는 주로 통일기 신라 후기 석불의 특징 가운데 하나여서 무봉사 석조여래좌상을 9세기 무렵 제작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육계 모양도 제작 시기마다 차이가 있다. 무봉사 석불좌상의 육계는 높이가 낮고 평퍼짐하다. 8세기 전반 불상의 육계와 비교해 보면 차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예를 들면 706년경 구황동 삼층석탑 출토 순금아미타불좌상이나 720년 감산사 아미타불입상의 경우 육계가 봉긋하게 솟아있다(그림 13>). 이처럼 수직에 가깝게 솟아있던 육계는 8세기 중-후반 석굴암 본존상이나 766년 석남암사 비로자나불좌상을 기점으로 높이가 낮아지고 이후 옆으로 퍼지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12>). 통상 9세기로 넘어가면 육계가 더욱 평퍼짐해지면서 머리와 구분이 불분명해진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경주 남산 삼릉계 석불좌상, 분황사 우물 출

<그림 12> 무봉사 석조여래좌상(9세기 중-후반)과 석굴암 본존상(8세기 중엽)



<그림 13> 무봉사 석조여래좌상(9세기 중-후반)과 감산사 아미타불입상(720년경)



<그림 14> 무봉사 석조여래좌상(9세기 중-후반)과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9세기 중-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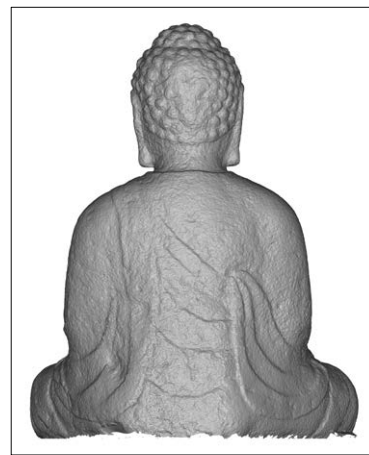
토 불좌상, 863년경 동화사 비로자나불좌상, 865년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그림 14>).³³⁾ 양미간의 백호는 언제 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영남사지에서 옮겨 봉안하면서 새로 조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목에는 삼도가 선명하며, 양 눈썹과 눈, 입술, 나발에는 채색의 흔적이 보인다. 눈은 가로로 길며, 입은 작게 표현했는데 코 너비와 같다. 입가에는 살짝 미소를 머금었다. 양 볼에는 살이 올라 있으며, 양 귀 끝은 깨졌던 것을 보수한 흔적이 있다.

이 불좌상은 두 장의 천을 겹쳐 입는 소위 ‘이중 착의’ 형식으로 가사를 걸쳤으며, 옷 주름은 층단식의 주름이다(<그림 15>). 이 같은 ‘이중 착의’ 가사에 층단식 옷 주름 역시 통일기 신라 하대에 특별히 유행했다. ‘이중 착의’ 형식의 가사란 두 장의 천을 겹친 것을 말한다. 즉 양쪽 어깨를 덮는 가사를 먼저 걸치고 난 후, 별도의 천으로 편단우견(偏袒右肩) 형식의 가사를 왼쪽 어깨에 다시 걸친 형식이다. 양쪽 어깨를 덮은 통견(通肩) 형식으로 걸친 것처럼 보이지만 통견 가사와는 다르다. 통견은 한 장의 천을 두르는 것이라면, 이중 착의는 양어깨 위의 천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그림 16>). 이처럼 두 장의 천을 양어깨에 걸쳤기 때문에 편의상 ‘이중 착의’라 부른다. 오른쪽 어깨를 덮은 또 하나의 천은 그 자락이 오른쪽 배 부근에서 가사 안으로 들어가 마무리되었다. 가슴 앞에서 비스듬히 드러난 속옷은 끈으로 묶어 고정했다.

<그림 15>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부분



<그림 16>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뒷면



33) 9세기 불상, 특히 경문왕대 불상 특징은 입영애, 『신라 하대 경문왕대 불교조각의 재조명』, 『미술사학연구』 278, 2013, p.13을 참조하기 바란다.

오른발을 위로 하여 결가부좌로 앉았다. 손은 오른손은 손바닥을 아래로 하여 오른 다리 위에 두고,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왼발 부근에 두었다(그림 1). 향마촉지인(降魔觸地印) 형식이기는 하지

<그림 17> 무봉사 석조여래좌상(9세기 중-후반)과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9세기 중-후반)



만, 오른손이 깊이 내려오지 않고, 왼손을 배 앞에 수평으로 두지 않은 손 모양 역시 통일기 신라 하대에 유행하던 손 모양이다. 무봉사 석불좌상의 나발, 육계, 이중 착의 형식의 가사, 손 모양 등은 이 상이 9세기에 제작됐음을 알려준다. 유사한 모습은 같은 권역인 인근 창녕 관룡사의 용선대 석불좌상, 팔공산 관봉의 불좌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그림 17).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 팔공산 관봉 불좌상 역시 평퍼짐한 육계, 짧은 목 등의 표현에서 무봉사 석조여래좌상과 같은 계열의 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밀양과 창녕은 지리적으로 같은 권역에 속해 있어 동일한 양식 및 형식의 공유는 자연스럽다.

한편, 석조불좌상의 뒤에는 높이 151cm의 석조광배가 놓여 있다(그림 1, <그림 10>).³⁴⁾ 앞서도 언급했지만, 재료는 석조여래좌상과 같은 화강암이지만, 발견장소가 서로 다르며, 크기도 서로 맞지 않아 제 짝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석조불좌상의 광배가 되려면 높이가 더 높고, 너비도 더 넓어야 하기 때문이다.³⁵⁾ 불상과 한 세트가 아니라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광배 역시 조각 수법이 우수한 작품이다. 파손된 부분도 거의 없고, 각 부분의 조각도 마멸된 곳 없이 잘 남아있는 귀중한 예이며, 특히 광배 뒷면에 약사여래좌상이 부조되어 있어 더욱 특별하다.

34) 석조불좌상과 석조광배는 무봉사로 옮겨온 후 별도로 봉안하고 있었다. 칠성각에는 석조광배를, 대웅전에는 석불좌상이 1구를 각각 봉안했었는데, 1965년 1월 초 故 황수영, 故 진홍섭 교수가 처음 조사했고, 이후 故 정영호 교수가 조사하여 간략한 글을 남겼다(정영호, 앞의 논문, 1962, pp.68~72). 당시 칠성각에 있던 석조광배는 뒷면에 있는 약사여래좌상을 주존으로 삼았기 때문에 정작 광배에 표현된 두광과 신광은 벽면에 가려져 있는 상태였다.

35) 석조광배는 높이 151cm, 너비 100cm, 아래 너비 75cm이다.

석조광배는 위가 뾰족한 배 모양 광배이다. 두 줄의 양각선으로 두광과 신광을 구분했으며, 두광 중앙에는 8개 꽃잎으로 장식한 연꽃무늬가 있고, 그 주위를 넝쿨무늬로 장식했다. 두 줄의 양각선 위에는 화불(化佛) 5구를 배치했다. 화불은 광배 꼭대기에 1구, 두광과 신광의 윤곽선 위에 좌우 각 2구씩 조각했다(<그림 10>). 5구의 화불은 크기가 저마다 다르지만, 광배와 좌대를 포함하여 대략 21~24cm 높이이다. 화불은 5구 모두 광배를 지녔으며, 양련의 연화좌 위에 결가부좌했다. 화불의 손 모양은 정상에 있는 화불만 항마촉지인이며, 나머지 4구는 합장했다.

무봉사 석조광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광배 뒷면에 부조된 약사여래좌상이다(<그림 10>).³⁶⁾ 광배 두께는 10cm가량이며, 뒷면에 부조된 약사여래좌상은 크기가 97cm이다.³⁷⁾ 광배 뒷면의 조각이지만 조각 두께가 7cm인 비교적 고부조의 조각이다. 약사여래좌상은 양련의 연꽃 좌대 위에 결가부좌하고 있으며, 광배는 따로 표현하지 않았다. 편단우견 형식의 가사를 걸쳤는데, 가사 주름이 양 무릎을 덮어 커다란 U자를 그리며 흘러내린다. 옷 주름은 음각선으로 새겼다.

손 모양은 오른손은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오른 다리 위에 두었으며,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배 앞에 두고 보주를 손바닥 위에 얹었다. 약사여래상은 왼손에 이처럼 약기(藥器 혹은 寶珠)를 들고 있어 쉽게 식별할 수 있다. 약사여래는 갖가지 질병을 고쳐줘 수명을 연장시킬 뿐 아니라 모든 재난을 없애주는 가장 현실적인 부처이다. 우리나라에서 약사여래상이 본격적으로 유행한 때는 통일기 신라시대이다. 약사여래상은 왼손에 보주를 두지만, 오른손은 차이가 있다. 어깨까지 들어 올려 시무외인(施無畏印)을 취한 예와 이 약사여래상처럼 오른 다리 위에 두어 촉지인(觸地印)과 같은 손 모양을 한 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약사여래상이 손에 들고 있는 약기의 모양도 보주형, 단지형, 바루형으로 다양한데, 이 상은 둥근 보주 모양을 들고 있다. 이 상과 같은 손 모양에 보주형 약기는 대체로 9세기에 유행하던 약사여래좌상의 특징이다.

광배 앞면의 화불 표현, 광배 가장자리의 불꽃무늬, 두광과 신광을 구분하는 두 줄의 양각선도 9세기 광배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또 약사여래좌상 두 다리 사이의 커다란 U자 주름과 옷 주름의 음각선 표현 역시 이 석조광배 역시 석조여래좌상과 비슷한 시기인 9세기 무렵 조각한 것으로 추정하게 한다.

36) 광배 뒷면에 약사여래좌상이 조각된 예는 경주 남산의 미륵곡 석조여래좌상도 있다.

37) 약사여래좌상의 세부 크기는 머리 높이 35cm, 어깨너비 44cm, 가슴너비 27cm, 무릎 너비 64cm이다.

IV. 맺음말 : 밀양 무봉사의 석조여래좌상과 석조광배의 의미

밀양은 한반도의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 위에 있다. 낙동강을 이용한 뱃길이 활발했기 때문이다. 특히 낙동강 하구부터 밀양 삼랑진까지 수심이 적당히 깊고 조수의 영향으로 결빙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연중 내내 항해가 가능했다.³⁸⁾ 이런 이유로 밀양은 수륙 교통의 요충지 가운데 하나로, 각종 농업생산물의 집하처였으며, 예부터 부유한 지역이었다. 이는 같은 권역의 창녕도 마찬가지였다. 밀양 삼랑포에서 내륙 강 상류 방향으로 상주 낙동진까지 어염을 신고 가서 곡물과 교환했다.³⁹⁾ 관련 내용은 비록 고려 중·후기-조선시대의 기록이지만, 여러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임춘의 제영(題詠) 『노공주거회(路控舟車會)』에서도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밀주(지금의 밀양)는 ‘산골 고을에 아름다운 경치 많아, 명성이 높기로는 한 고장의 으뜸, 땅이 신령하여 인재 절로 걸출하고, 들이 기름져서 해마다 풍년드네. 배와 수레가 물러드는 도회지이며, 예의와 풍속이 남아있는 고장이네.”⁴⁰⁾

이중환(李重煥, 1690~1752)의 『택리지(擇里志)』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다.

대구 동남쪽에서 동래 사이 여덟 고을이 있는데, 땅은 비록 기름지나 왜국과 가까워 살 만한 곳이 못 된다. 오직 밀양은 점필재 김종직의 고향이며, 현풍은 한훤당 김굉필의 고향이다. 강을 끼고 있고 바다와 가까워서 생선, 소금과 배로 통상하는 이익이 있으니 또한 변화한 좋은 곳이다. 한양 역관들이 여기에 많이 머물면서 많은 재물로 왜인과 장사하여 많은 이익을 얻는다.⁴¹⁾

이런 이유로 이곳 밀양에는 예부터 고찰(古刹)이 많았다.⁴²⁾ 아쉽게도 지금까지 그 영화를 유지하고 있는 사찰은 없지만, 인근 창녕, 청도와 함께 통일기 신라 하대 불교미

38) 변광석, 『조선 후기 경상도 水路, 海路의 교통망 발달과 五廣大 문화』, 『역사학연구』 59, 2015, p.112.

39) 변광석, 앞의 논문, 2015, pp.112~116.

40) 『西河集』 卷二 張十六 遊密州書事; 『輿地圖書』 慶尙道 V (변주승 역주, 앞의 책, 2009, p.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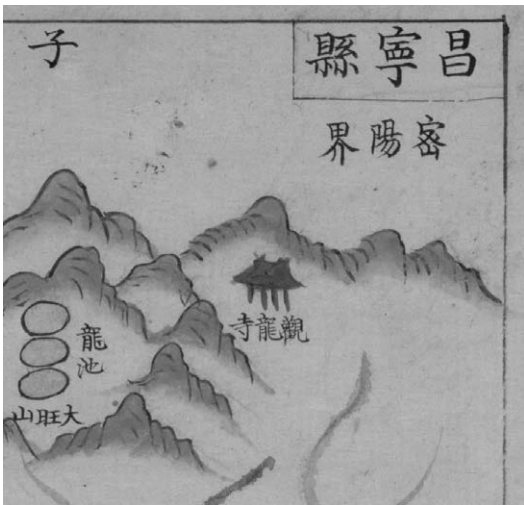
41) 李重煥 著, 이익성 역, 『擇里志』, 을유문화사, 2006, p.72.

42) 밀양의 古刹은 통일기 신라 하대부터 고려 중기 이전까지 창건된 사찰이 대부분인데, 대표적으로 표충사(原靈井寺), 石骨寺, 萬魚寺, 嶺南寺, 天柱寺, 瑩源寺, 嚴光寺, 鳳泉寺, 靈隱寺 등이 있다. 밀양지편찬위원회 편, 『密陽誌』, p.188.

<그림 18> 응천강가의 영남루와 무봉사



<그림 19> <광여도(廣輿圖)> 창녕현 부분, 19세기 초,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술의 또 하나의 중심지였다. 이는 이곳 밀양 사찰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줄 세력과 경제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밀양은 수로를 통한 인근 지역과의 밀접한 교류, 그리고 풍부한 재원의 확보로 불교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밀양의 대표 사찰 가운데 하나였던 영남사와 무봉암은 응천강을 끼고 있어 수로를 이용한 교통이 편리했다(<그림 18>).⁴³⁾ 이러한 여건은 이곳 밀양이 인근 창녕과 함께 통일기 신라 후기 불교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밀양과 창녕은 수로로 직결되는 같은 권역으로 밀양 무봉사 석조 여래좌상과 창녕 관룡사 용선대의 불상이 동일한 양식을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그림 17>, <그림 19>).⁴⁴⁾

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과 석조 광배는 확실한 문헌 근거는 없지만, 영남사지에서 옮겨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봉산 인근에 영남사지 이외

43) 응천강은 밀양 중심의 남쪽 城址 밑을 휘돌아 남으로 흘러 낙동강으로 유입하는 밀양의 대표 하천이다(『密陽志』, 앞 책, 別錄). 지금은 밀양강 혹은 南川江이라 하는데, 옛날에는 밀양을 지칭하는 고을이름으로 사용된 때도 있었다.

44) 유사한 예는 남한강 수로에 위치해 불교 문화의 번성을 이뤘던 고려전기의 원주지역 불교 조각이 있다(임영애, 『고려전기 원주지역 불교조각』, 『미술사학연구』 228 · 229, 2001, pp.39~63).

* 출처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사진은 『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정밀실측조사보고서』(밀양시, 2019) 작성 당시의 조사 기관에서 필자에게 제공한 것임을 밝혀둔다.

에 대형 사찰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석조여래좌상과 석조광배는 영남사와 관련된 유물이라고 봐야 한다. 다만 처음부터 영남사에 봉안했던 것인지, 아니면 영남사 소속 암자였던 무봉암에 봉안했던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석조여래좌상의 높이가 97cm이니 좌대와 광배가 모두 온전했다면 전체 높이가 230cm에 달했을 것이다. 통일기 신라 불상의 경우, 통상 불상 높이가 1m일 때 좌대는 90여cm 높이여서 광배를 제외해도 높이가 대략 2m에 달한다. 이 정도 크기라면 무봉암보다는 영남사 범당의 주존 불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석조광배 역시 불좌상과 제 짝은 아니지만, 그 크기로 봐서 영남사의 다른 전각에 봉안됐던 불좌상의 광배였을 것이다.

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은 광배와 좌대를 잃어 불신만 남아있고, 석조광배 역시 본존불을 잃고 광배만 남아있지만, 두 작품은 모두 통일기 신라 하대의 우수한 작품이다. 특히 석조여래좌상은 인근 창녕 관룡사 용선대의 석조불좌상과 같은 계열의 불상으로 창녕과 같은 권역이었음을 알려준다. 밀양은 낙동강 물길을 교통망의 발달로 사람과 재화가 모이는 장소였다. 지금은 대부분 사라지고 절터만 남아 옛 영화를 알려주지만, 밀양에는 풍부한 재원의 확보로 불교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췄고, 이를 잘 알려주는 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봉사의 석조여래좌상과 석조광배인 것이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高麗史』 第102卷 列傳.

『東文選』 卷之七 『謝朴恥庵惠茶』.

『林下筆記』 第13卷, 李裕元(1814~1888).

『西河集』 卷二 張十六 遊密州書事 (진성규 번역,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5).

『新增東國輿地勝覽』 第26卷 慶尙道 密陽都護府.

『輿地圖書』 慶尙道 V (변주승 역주, 『輿地圖書』 35, 디자인흐름, 2009).

『擇里志』 (李重煥 著, 이익성 역, 『擇里志』, 을유문화사, 2006).

『東江遺集』(1690年) 申翊全 著, 『密陽志』(1652年), 卷十六 別錄.

2. 연구 논문

권순강 · 이호열, 『임진왜란 이후 밀양도호부 읍성의 공간구조 변화』, 『건축역사연구』 87, 2013.

김광철, 『여말선초 사회변동과 밀양 지역사회 : 조선전기 밀양지역사회의 재편과 면리제』, 『石堂論叢』 39, 2007.

류성룡, 『객사 누각(樓閣)의 기능 및 공간성 변화 : 밀양 영남루를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34, 2018.

밀양지편찬위원회 편, 『密陽誌』, 밀양문화원, 1987.

변광석, 『조선후기 경상도 水路, 海路의 교통망 발달과 五廣大 문화』, 『역사학연구』 59, 2015.

안계복, 『시문분석을 통한 영남루의 경관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2, 2014.

엄태건, 김수진, 박정임, 강한민, 심우경, 『밀양 수是堂 12경의 문화경관 해석』,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2, 2011,

유지봉, 『林樁 漢詩에 나타난 都城 心象과 意識 일고찰』, 『동아시아고대학』 46, 2017.

이중환 지음, 이익성 옮김, 『택리지』, 을유문화사, 2005.

이호열, 『밀양 영남루 연혁 및 건축형식 변천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9, 2000.

임기영, 『밀양의 전적 인쇄 문화 연구』, 『서지학연구』 76, 2018.

- 임영애, 『고려전기 원주지역 불교조각』, 『미술사학연구』 228 · 229, 2001.
- 임영애, 『신라 하대 경문왕대 불교조각의 재조명』, 『미술사학연구』 278, 2013.
- 임영애,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의 새로 발견된 '명문'과 '양식' 문제』, 『신라문화』 47, 2016.
- 임채명, 『『嶺南樓重修記』의 결구와 그 특성 : 1851년경의 안씨(安氏) 작품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39, 2009.
- 임채명, 『밀양 영남루 시의 양상 : 주로 내용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20, 2009.
- 임채명, 『嶺南樓記의 變貌 樣相-주로 구성 방식을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28, 2009.
- 장동표, 『임진왜란 전후 밀양 재지사족의 동향』, 『역사와 현실』 55, 2005.
- 전재동, 『『嶺南樓詩韻』의 발굴과 소개 - 구성과 체재 분석을 중심으로 -』, 『서지학연구』 72, 2017.
- 전재동, 『『嶺南樓詩韻』의 서지적 특징과 자료적 가치』,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4, 2018.
- 전재동, 『密陽 嶺南樓 題詠詩文의 書誌의 分析 : 필사본 嶺南樓詩韻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8.
- 정영호, 『密陽 舞鳳寺의 石造光背와 石佛坐像』, 『미술사학연구』 19 · 20, 한국미술사학회, 1962.
- 정출현, 『명종대 한 젊은 선비의 정치적 여정과 시대정신 - 今是堂 李光軫의 정치적 삶과 그의 시대를 중심으로 -』, 『국학연구논총』 19, 2017.
- 최경환, 『실경산수도시와 화면상의 이미지의 재산출 방향 -이용구의 <금시당십이경> 시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8, 2008.
- 최경환, 『화면상의 풍경과 시적 풍경의 차이와 근거 : <금시당십이경도>와 <금시당십이경> 시의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0, 2009.
- 하강진, 『密陽嶺南樓 題詠詩研究』, 『지역문학연구』 13, 2006.
- 한태문, 『通信使 使行錄에 반영된 조선시대의 밀양』, 『지역문학연구』 13, 2006.
- 황용수, 『密陽 지역의 지명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2, 1995.

■ 논문투고일 : 2020. 1. 8 ■ 심사완료일 : 2020. 2. 4 ■ 게재확정일 : 2020. 2. 4

■ Abstract

The Stone Seated Buddha and Stone Mandorla at Mubongsa Temple (舞鳳寺) in Miryang, the Hub of Traffic

Lim, Young-ae*

The stone seated Buddha and the stone mandorla at Mubongsa Temple in Miryang are not originally paired, but are now enshrined together at the Main hall of Mubongsa Temple. In both works, there are no related literatures and no inscription, so there is much difficulty in conducting research on them. Among them, the stone seated Buddha lost both pedestal and mandorla, but if it was intact, the total height would have reached 230cm. We decided that a statue of this size should be regarded as a Buddha statue which was enshrined in the main building of Yeongnamsa Temple (嶺南寺). Yeongnamsa Temple was closed at the end of Goryeo, where Yeongnamnu Panilion (嶺南樓) was built.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stone seated Buddha and stone mandorla, which remained at the temple site of Yeongnamsa Temple, were moved to the nearby Mubongam Hermitage (舞鳳庵). The Mubongam Hermitage ever came to be called the Mubongsa Temple by raising its dignity. According to what is said at the temple, after the closure of Yeongnamsa Temple, Mubongam Hermitage which was a subordinate temple, was called the Mubongsa Temple by raising its dignity, but it was actually called Mubongsa Temple since the 20th century. This is because the local maps of the late 19th century still refer to it as “Mubongam Hermitage.” The stone seated Buddha and stone Mandorla both assumed a sculpture made in the ninth century, considering its style.

The stone seated Buddha at Mubongsa Temple in Miryang lost Mandorla and pedestal, leaving only the Buddha body, and the stone Mandorla also lost the Main Buddha statue and only Mandorla remained, but both works are excellent works from the late unified Shilla period. In particular, the stone seated Buddha is a Buddha statue in the same line as the seated stone Buddha statue at Yongseondae Cliff (龍船臺) of Gwallyongsa Temple (觀龍寺) in Changnyeong (昌寧) nearby Miryang, indicating that it was the same jurisdiction area as Changnyeong. Miryang

* 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eoul Campus, Professor

was a place where people and goods gathered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transportation network through the Nakdonggang river waterway. Most of them are gone now, leaving only the temple site to tell the old movies, but Miryang has the conditions to develop Buddhist culture with abundant resources, and one of the most recognizable artifacts is the stone seated Buddha and stone Mandorla at Mubongsa Temple.

Keyword ● Miryang, Yeongnamsa Temple, Yeongnamnu Panilion, Mubongam Hermitage, Mubongsa Temple, Stone Seated Buddha, Stone Mandorla, Stone Seated Bhaisajyaguru Buddha, Changnyeong, Gwallyongsa Temple, Yongseondae Cliff